

5·18 왜곡 '가짜뉴스' 여전히 판친다

기념재단·민연련 모니터링
블로그·유튜브 등서 나돌아
5·18에 대한 편견 확산시켜
왜곡 처벌 법안은 국회 표류

5·18 왜곡 가짜뉴스 보니
유공자 가족 특혜 취업 싸움이
시민군이 민간여성 집단성폭행
시민군이 광주교도소 습격 등

유튜브 등에서는 가짜뉴스가 다수 생산·유포되고 있었다. 대부분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프리덤뉴스에서 뉴스 형태로 올라온 글들을 인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유공자 유족들의 국가고시 가산점 10%' '5·18유공자 수만 명의 자녀들 공무원 취업기회 싸움이' '5·18유공자들이 6:25참전 용사보다 더 큰 혜택' '부적격자 유공자 지정' '정부의 부당한 유공자 명단 비공개' 등이었다. 실제로는 5·18 유족의 국가고시 가산점은 5%이고, 정부에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의 30%에 상한하기 때문에 공무원 취업 싸움이 있을 수 없다. 5·18 유공자와 6:25참전 용사는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부적격 유공자로 지목당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80년 9월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5·18피해자로 분류됐다.

특히 정부공동조사단이 사실이라고 밝혔던 5·18 성폭력마져 경찰과 시민군이 가해자였다는 내용이 극우성향 사이트와 개인블로그 등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5·18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접속차단, 삭제, 이용정지 등 395건을 처리했다.

유민지 민연련 운영팀장은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청년세대의 취업문제와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5·18과 광주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또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향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8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6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유공자 가족은 가산점이 있어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싸늘이하고 있다', '5·18때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이 민간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헬기사격은 없었고,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 블로그·SNS·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18 왜곡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은 수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연선시민연합(민연련)은 3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5·18민주화운동 방송 및 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종편채널과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프리덤뉴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편 가운데 MBN은 5·18 관련 보도를 15차례(총 83분), JTBC는 9차례(47분) 내보낸 반면 채널A는 3회(7분)에 불과했고, TV조선은 5·18을 아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일부 종편은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랑 더하고 김치 나눠요" 3일 오후 광주시 남구 입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사랑더하기 김치나누기' 행사 참가자들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최혜민 기자choi@kwangju.co.kr

中 어선 촌촌한 그물코로 조기 싸움이 극성

서해상 불법조업 4척 나포

중국어선들이 규정보다 그물코 크기를 줄인 '촌촌한 그물'로 서해 조기어장 치어를 싸움이 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해경

은 "지난 2일 망목(網目)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일 오후 1시 36분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선적 99t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도 같은 날 오전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북서쪽 95.4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6t 유망어선 A호, B호(98t), C호(99t) 등 3척을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한국-중국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규정보다 촌촌한 42mm, 44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어획물을 다치는 대로 포획했다.

지난 10월 이후 서해남부와 제주서방 해역에서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의 망목 위반행위는 26척이다. 전체 나포건수(77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망목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망목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업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보이스피싱 피해' 윤장현 전 시장 사기범 자녀 취업 개입 정황 포착

DJ센터·사립중 청탁 수사
직권 남용 등 혐의 불구속 입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광주일보 2018년 11월 23일자 6면)이 사기범 김모(여·49)씨 자녀의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을 부탁한다"라는 김씨의 말에 속아 취업 청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시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이 기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피해자에서 공작선거범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억 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범 김씨의 아들 조모씨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임시직으로 취업해 7개월여간 일한 뒤 지난 10월 그만뒀으며, 딸은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기술·가정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뒤 최근 결혼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당시 윤 시장으로부터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해당 교사의 거취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의 측근이자 김대중컨벤션센터 간부로 근무해온 L씨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씨의 자녀를 취업시켜 준 혐의가 있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4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김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해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씨와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네발 광주진료소로 의료봉사활동을 떠난 윤 전 시장은 일행 모두가 귀국했는데도, 혼자 남아 네발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 등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함평 등 전국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해 관계자 7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음식 쓰레기 등 1600여t의 중간 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내다지 등에 불법으로 처

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충남 예산·아산, 전북 전주, 경기 양주 등에 소재한 업체 5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함평 소재 무허가 A업체로 보내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커피숍서 주은 카드로 주유소서 끊은 주부 "내 것인줄 알고..."



○··40대 주부가 커피숍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

의 것으로 착각(?)해 사용하는 바람에 경찰서행.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48)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커피숍 바닥에서 B(여·24)씨의 신용카드를 주워 1시간 뒤 남구의 C주유소에서 5만원을 끊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내 신용카드와 똑같이 생겨 내 것인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에설치치료학과(D.C.S.)	15
		통합에설치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민음에 있는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